

01 교회소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

남·여선교회총연합회 및 기도제물연합회 헌신예배와 아버지 주일 행사 등 오월의 푸르름으로 가득한 교회 소식.

02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처음 표적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처음 표적에는 놀라운 인간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다.

03 기획특집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는 비결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본다.

04 간증

믿음 안에서는 문제가 축복으로~

결혼 6년 만에 임태의 축복을 받은 박선영 집사와 부러진 갈비뼈가 치료되고 청력이 회복된 내말 음 바하돌 라이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789호 2017년 5월 2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나를 변화시킬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 2017 남·여선교회총연합회, 기도제물연합회 헌신예배



▲ 강사로 선 당회장 이재록 목사(사진 1)는 '남·여선교회총연합회, 기도제물연합회 헌신예배'(사진 2) 시, 설교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했다. 이날 헌신자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켰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울동과 함께 감동의 특송을 드려 성령 충만한 열기로 성전을 가득하게 하였다(사진 3).

지난 5월 14일, 주일 저녁예배 시 '남·여선교회총연합회, 기도제물연합회 헌신예배'가 있었다. 헌신자들은 우리 교회 남선교회총연합회(5개 연합회, 16개 선교회), 여선교회총연합회(5개 연합회, 19개 선교회), 기도제물연합회(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18개의 기관)를 비롯 전국 43개 지교회의 남·여선교회 회원들이다.

GCN방송(www.gcntv.org)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생방송 되는 가운데 이날 헌신예배는 남선교회총연합회 회장 송석길 장로의 사회, 기도제물연합회 회장 오세영

권사의 대표기도, 마산만민성결교회 여선교회 회장 김성희 집사의 성경 봉독이 있었다. 그 뒤 마음을 다해 준비한 대표자 특송(곡명: 사랑합니다 만민의 양 떼여)에 이어 헌신자 전체 특송(곡명: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영광을 돌렸다.

이날 강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믿음'(히 1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 힘을 내어 달려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중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첫째 변개하지 않는 믿음이며, 둘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는 믿음이고, 셋째 나를 변화시켜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세우신 목자의 권능이 나를 변화시키심을 믿어드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헌신자들은 예배를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시는 주님, 목자의 권능을 신뢰함으로 변개치 않고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더욱 힘차게 정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 2017 어버이주일 행사



지난 5월 7일 주일 대예배 후 '2017 어버이주일 행사'가 우리 교회 본당에서 권사회연합회 주관으로 열렸다. 70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들을 초청하여 이희선 목사(남·여선교회 총지도교사)의 설교로 천국 소망을 더해주고, 예능위원회 소속 권능팀과 드림반주단의 축하공연으로 웃음과 행복을 선사했다. 매년 권사회연합회에서는 맛있는 떡과 음료를 준비하여 나눠 드리고 있다.

## 시각장애에도 99세 어머니를 극진히 섬겨 '효행자 서울시장표창'을 수상한 우리 교회 김형중 집사



지난 5월 8일, 서울시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5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시 우리 교회 1대대 9교구 김형중 집사(56세, 5가나안선교회)가 '효행자 서울시장표창'을 받았다. 1급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99세 고령의 어머니를 21년간 극진히 봉양해 이 상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민망하고 감사드립니다. 늘 구제하시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저 또한 있는 곳에서 참된 사랑과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 예수님의 처음 표적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1~11)

●●●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서 세상 사람들의 혼인을 축복하신 것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인간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 1. 예수님께서서 혼인 잔치에 초청받아 참석하신 섭리

갈릴리 가나는 세상을 의미하며, 가나의 혼인 잔치란 먹고 마시고 취하며 죄악으로 관영된 마지막 때를 뜻합니다. 오늘날도 세상 주관자인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 죄악의 본성을 좇아 세상에 취하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서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아 가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을 때 이를 순순히 허락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시는 피가 영생을 주는 피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요. 또한 혼인한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낳듯이 주님을 신앙으로 맞이한 신부도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됨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 2. 돌항아리에 물을 부어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처음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 잔치가 무르익어 포도주가 모자라자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기에 무슨 방법을 마련해 주시리라는 신뢰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에게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곧 하나님께서(요 1:1)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로서 시작과 끝이 없으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 뿐이지요(요 2:3).

예수님께서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혼인 잔치에서 세상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이 예수님과 상관없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은 세상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심임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내 때’는 예수님께서서 공생애 기간 동안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세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 ‘나’ 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심으로 구속의 섭리를 완성하시는 때’로, 바로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의 청을 순순히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하지요(요 2:5).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은 변함이 없고 굳은 것을, ‘여섯’은 6천 년 인간 경작의 역사를 뜻합니다. 따라서 ‘돌항아리 여섯’은 인간 경작을 6천 년 동안 변함없이 이루실 것을 나타내지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웠는데, 이는 인간 경작의 역사가 6천 년이라는 기간을 넘지 않고 가득 채울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요 2:8).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니 물은 이미 맛 좋은 포도주로 변했고, 이에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며 칭찬하지요(요 2:10). 일반적으로 혼인 잔치가 무르익으면 나중에는 처음보다 못한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참석하신 잔치에서는 처음보다 좋은 포도주가 나왔던 것입니다.

### 3.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의 영적 의미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요 1:14). 또한 ‘포도주’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신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라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이 변한 새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맛 좋은 포도주에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 소망 가운데 마음 중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지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

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했습니다. 연회장이나 다른 손님들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며, 하인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일꾼들을 상징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람들에게 갖다 준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과 일꾼들은 ‘새 포도주’를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공급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서 누구신지, 왜 보혈을 흘리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처음 표적을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은 믿었습니다(요 2:11).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후에야 제자들이 정녕 마음으로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8~40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서 요나의 표적, 곧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올 때에야 제자들이 참 믿음을 갖게 됨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야 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처음 표적은 장차 이루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 곧 인류 구속에 대한 놀라운 사건을 미리 나타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무수한 사람이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신부 단장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장기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비결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 분야로 점검해 봄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진주 문을 통과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point 01

###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담겨 있나요?”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과 응답과 축복의 비결, 참된 선과 사랑 등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밝히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우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에는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정당한 일이라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 남의 눈을 속이거나 법을 어기면서도 남들도 다 하나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면 '바리새, 하지 말라, 하라, 자키라'는 말씀대로 행하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시 119:9).



만일 천국 소망이 부족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기 힘들다면 '천국'과 '지옥'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일곱 영'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 잘하는 비결' 말씀을 양식 삼으면 된다. 기도할 때도 '영으로 들어가게 해 주세요.'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랑장,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팔복 등의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여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변화될 수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의외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경우가 많다. 설령 노트에 설교 말씀을 요약하고 많은 신앙 서적을 읽었다 해도 그때만 은혜받고 흘러버린다면 마음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러 번 들은 말씀이니 잘 아는 내용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설교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든가 똑같은 말씀을 들으니 재미가 없다며 잠냄과 졸음 속에 빠지기도 한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마음에 담아서 순종함으로 마음 깊이 새겨야 내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다.

## point 02

###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외우는 하는데 자신과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화평을 이루려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나 자신의 의와 틀을 버리고 상대에게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사람들과 일을 할 때에는 여전히 부딪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의와 틀이 강하다. 나를 힘들게 하고 화평을 깬다.'고 오히려 상대를 판단하면서도 자신이 화평을 깨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적용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성령의 감동함 속에 자신을 발견하고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내용을 깨달으려면 영적인 사모함과 더불어 자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 말씀에 은혜만 받고 흘러버리는 경우이다. 항상 은혜받을 자리는 찾아다니지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으려는 노력은 부족하니 결국 마음의 변화도 더디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열매가 없는 것이다(히 2:1).

한 주간 설교 말씀만으로도 자신이 발견되는 것을 붙잡고 꾸준하게 기도하며 노력해 나간다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영적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의 행함이 있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뻐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처럼 평소에 행함이 있어야 특별한 은혜의 때에 믿음이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된다.

## point 03

###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고 있나요?”

사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진다.

초신자라도 은혜가 임하면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성전 곳곳을 청소하는가 하면, 주교사로, 식당 봉사, 교통 봉사, 예배 봉사, 분야분야 무엇이든 할 일을 찾아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꾼이 아니더라도 모이기에 힘쓰며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중보의 기도를 쌓아주기도 한다.

이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감사의 향으로 충성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만큼 더 신속히 변화시켜 주신다.



충성 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될 기회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많은 영혼을 대하는 만큼 내 안에 모난 부분,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다.

물론 몸으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향으로 충성할 때라야 하며, 그 안에서 어찌하든 더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되려는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충성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날마다 더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며 하나하나 말씀에 의지하여 조금씩이라도 변화된다면, 영적 믿음이 신속히 성장하여 마침내 온 영의 열매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런 소망 가운데 더욱 열심히 달려감으로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참 자녀로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안길 수 있기를 바란다.

## 5

###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7.5.21~5.27

####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의 선 ■ 축복
- 육체의 결여 2-5 ■ 선 1-3
- 일곱교회 5-11 ■ 지옥 16-17
- 십자가의 도 16-21
- 믿음의 분량 19-23
- 요한계시록 강해 101-109

#### GCN TV설교

- 틀린 문제 풀기 1 [이수진 목사]
- 목자님의 열매 3 [이희선 목사]
- 율기 강해 28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30 [정구영 목사]
- 사랑 1 [김수정 목사]
- 성결을 향하여 [조희희 목사]

####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16
- 권능 스페셜 17 ■ 마지막 때 12
- 창조와 과학 14 ■ English 12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74
- 내 마음의 찬양 18
- 모두 드려요 43

#### 해외교회 프로그램

- 회상 11
- 러시아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7

전국 어디서나  
alleg tv 882번

세계 어디서나  
Roku TV



## “결혼 6년 만에 고대하던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박선영 집사**  
(35세, 마산만민성결교회)

2011년 5월 결혼한 저희 부부는 시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임전문한의원에서 값비싼 약을 지어 먹어보아도 효과가 없었지요. 그러던 중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고 잉태의 축복을 받은 부부의 간증을 듣고 2014년 1월, 저희도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잉태의 소식이 없자 저희 부부는 이내 마음이 조급해져 세상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불임전문병원에서 검사를 보니, 남편 최진영 집사는 정상이었는데 저는 오른쪽 나팔관이 막혔다는 결과가 나왔지요. 그렇다고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의사는 말했지만 임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배란 주기가 정확하지 않아 약물 시술을 해보았지만 이것도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 뒤 두 차례 인공수정 시술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성

공했지만 곧바로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수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보았음에도 막상 내 일로 다가왔을 때는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는 부족함을 깨달으며 너무도 죄송했습니다. 2015년 3월, 저희 부부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절야를 작성해 42일간 빠짐없이 기도하며 예물과 시간,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기관장, 헌금위원 등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였지요. 어느덧 빨리 응답받기만을 바랐던 마음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화하고자 노력하니 조급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던 2015년 10월, 당회장님께서 “건강한 아이 출산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응답의 확신이 생겨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뒤 2016년 2월, 당회장님 설 만남 때 저희 부부는 손바닥에 ‘잉태의 축복’이라는 마음의 소원을 적고 당회장님과 악수를 하였습니다. 또 3월에 있을 ‘남·여 선교회 헌신예배’를 준비하며 제가 가장 아끼던 것을 처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심는 등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 가임 기간이 아닌데도 당회장님 설 만남 후 임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어찌나 성도님들이 기뻐해 주시던지 마산만민교회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고, 저희 부부는 하나님 사랑에 눈물로 감사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28일, 결혼 6년 만에 태어난 예쁜 딸 하은이는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으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부러진 갈비뼈가 치료되고 왼쪽 귀의 청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움 바하돌 라이 성도** (61세, 네팔만민교회)

카트만두에 사는 아들 간바하돌 라이 집사의 전도로 저는 2015년 2월, 아들 집에 갔다가 네팔만민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아들은 시골에 사는 제게 전화로 믿음을 심어 주며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전하곤 하였지요. 그러던 2016년 8월, 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마을 고지대에서 일을 하던 중 돌연 40 kg 무게의 큰 돌이 산에서 떨어져 제 등을 덮친 것입니다.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통증으로 크게 소리를 질렀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일하던 아내가 놀라 황급히 달려와 마을 사람들을 불러 저를 급히 집으로 옮겼지요. 사람들은 제게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

만 저는 병원이 너무 먼데다 거동하기 힘들어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등을 만져 보니 갈비뼈 두 대가 부러져 심하게 어긋나 있었지요. 잠을 이루기 힘들 만큼 통증이 엄청났습니다. 저는 카트만두에 가서 네팔만민교회 담임 이해천 목사님에게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직접 기도를 받고 싶었지만 폭우로 인해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았고 몸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였지요. 카트만두에 있는 아들 가족과 목사님은 함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MP3에 저장되어 있는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계속해서 받고 권능의 무안단물



(출 15:25)을 환부에 뿌렸지요. 그 뒤 단기간에 급속히 상태가 호전되어 스스로 일어서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11월, 아들이 희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네팔만민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아 만민 전(全)지교회 총지도교사인 이해천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카트만두로 가서 손수건 집회(행 19:11~12)에 참석하여 강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과연 그동안 말로만 들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제게도 나타났지요. 허리를 움직이지 못했는데 기도 받은 자리에서 허리가 굽혀졌을 뿐 아니라, 3년 전부터 작은 소리는 잘 듣지 못하던 왼쪽 귀도 청력이 회복되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지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청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08-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